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4, 원시 역사, 창세기 1-11장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4, 원시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과정의 대부분은 성서 역사의 후기 시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나는 원시 역사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첫 11장에 대한 역사이며, 성경 기록의 초기 역사를 밝혀 주는 몇 가지 분리된 고고학적 발견을 제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주 초기의 수메르 원통형 봉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실린더 씰은 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에 걸거나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일반적인 봉인처럼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담배꽂초, 작고 조그마한 밀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토 위에 굴리면 묘사나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초기 수메르 원통형 봉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기 날짜를 보세요. 아담 시대 바로 전인 기원전 2200년쯤입니다.

눈치채셨다면 여기에 나무를 마주하고 앉아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나무는 존경이나 숭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인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각 인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뱀을 보았는데, 그 뱀은 눕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나무는 분명히 존경이나 숭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장면, 즉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남자가 따라와서 그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장면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행위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날일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물개로 가을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고고학 유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엔게디(En Gedi)라는 곳에 있는 매우 초기의 성전입니다. 사해(Dead Sea)가 내려다보이는 객실입니다.

아름다운 사이트입니다. 오른쪽 하단 사진을 보시면 사해와 트랜스요르단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에서였습니다. 나중에 유대 광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사원은 1950년대에 요하난 아하로니(Yohanan Aharoni)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후 벤자민 마자르(Benjamin Mazar)의 작업 중에 텔(Tel), 즉 후기 도시인 엔게디(En Gedi)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000년 초반, 심지어 4000년 초반, 심지어는 일찍이 5000년 초반에 고립된 구조로 밝혀졌습니다. 석회암 시대를 우리는 구리석기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트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나 이 초기 시대의 것으로 발견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넓은 집이나 절입니다. 이곳에서는 돌로 만든 포도주 분지나 수조, 벤치 등의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문이 있고, 여기에는 공급실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뜰에 도넛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일종의 대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말이죠. 그 대야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신주를 위해, 물을 담기 위해, 그것을 결정하는 안감이나 어떤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실제로 이 고립된 장소에서 숭배되었던 나무였다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세워진 대야나 암석은 이 숭배의 나무를 위한 설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후반부에는 나무나 목상,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이교 가나안 종교를 숭배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매우 초기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되돌아보는데, 이것은 아마도 외딴 곳에서 숭배를 받고 있다는 고고학적 묘사일 것입니다. 성지의 금석 시대는 연구하기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초기에는 비문이나 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고고학 기록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도자기와 독특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 벽의 상부 구조는 진흙 벽돌이었을 것입니다. 도로 된 기초 벽이나 처음 몇 개의 코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모두에게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 David가 이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는 적어도 2,000년, 아마도 2,5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등산을 좀 해야 해요. 오른쪽 위를 보면 산지로 올라가는 지스 오르막길과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나할 아루곳이 보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사해 지역인 요르단 계곡이나 균열에서 올라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중요한 전략적

장소입니다. 이 지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요새가 있었고 로마 요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아름답게 보존되었고 발굴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에덴, 에덴동산, 간에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가끔 받는 고고학적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덴동산을 찾으려면 다트를 들고 지구의 지도에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다트가 끝나는 곳을 추천했을 것입니다. 땅에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그곳이 에덴동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천했을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위치에 대해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입니다.

물론 그 강은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입니다. 이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당시, 즉 역사 초기에 같은 과정을 밟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손과 기혼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일강이 하나의 강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나는 이라크 북부와 이란 서부에 에덴이라는 이름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지명이 있다고 기술한 고고학 회의에서 멋진 논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북쪽 끝에 있는 이라크와 이란의 산악 구릉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명, 지명이 실제 에덴동산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에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카디아의 럭셔리함, 풍요로움, 또는 아카디아와 수메르의 평범함, 풍성함. 그러니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사우어(James Sauer)라는 고고학자가 쓴 기사도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요르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는 1차 걸프전 당시 사우디 사막에서 촬영된 일련의 위성 사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서부 해안의 헤자즈 산맥에서 페르시아 만까지 뻗어 있고 샤르알아랍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합류하는 거대한 강바닥, 마른 강바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Sauer는 복음주의자가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에덴의 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강을 쿠웨이트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Eden에 대해 제안된 위치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년 전 고대에 거대한 강이었던 마른 강바닥입니다. 그는 그것이 창세기 2장에 언급된 비손 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강의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자즈 산맥에서 시작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북부를 가로질러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어귀 근처로 흘러가며, 이 강은 페르시아 만에 닿기 전에 샤흐르 알-아랍으로 합쳐집니다. 고대에는 아마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역사 초기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몇 가지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기혼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고대 예루살렘 외곽의 기혼 샘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활동 중인 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이 아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gusher를 의미하는 단어의 다른 용도 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노아와 방주 이야기. 이번에도 다양한 문화권의 방주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신학적인 특징은 입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입구는 여러개가 아니고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방주에 들어간 동물과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의 초기 이미지로 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길가메시 서사시(Gilgamesh Epic)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 서판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트나피슈티(Utnapishtim)이라는 남자와 노아 같은 인물인 그의 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들이 분명히 변형이 있는 단일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마도 수세기에 걸쳐 장식되고 변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공통된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George Smith가 번역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창세기의 답변에서 이것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와 고대 문화에는 일종의 홍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우연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만들고 싶은 또 다른 요점 중 하나는 아라랏산 유적지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개의 산, 작은 아라랏(Little Ararat)와 아라랏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터키 동부에서 아라랏 산 주변을 조사하고 있는 탐험대를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산에 오르고 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나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꽤 아래쪽에 있는 산 자체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랏를 등반한 많은 사람들이 산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가공된 목재를 발견했으며, 이를 손으로 가져오거나 그곳에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앤드류스 팀은 성서의 우라르투(Urartu)인 아라랏(Ararat) 주변에서 고고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자기와 도자기의 일종의 진행 과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도자기를 남쪽에서 남쪽으로 추적하여 도자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초기에 이주가 있었다면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민족이나 민족의 역사.

그들은 또한 우라르투(Ulartu) 지역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는 다시 성서 기록과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술가가 아라랏 산의 산 또는 호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짜 고고학자들이 방주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왔고,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모두 가짜입니다. 분명히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앤드류스 그룹은 매우 조심스럽고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무지개의 상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가 땅을 덮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느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여기 지상에 있는 우리와 그분 사이에 맺으신 조약이나 언약과 같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도상학에서, 작은 쪽과 큰 쪽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면 여기에서도 또 다른 원통형 인장이 찍혀 있고, 제 생각에는 큰 쪽이 작은 쪽과 계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활의 곡선은 언제나 더 큰 쪽을 향하고 있다. 활의 줄은 하급자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운 예입니다. 더 큰 부분은 무지개의 구부러진 부분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활의 편평한 부분이나 실제 활줄은 땅, 즉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초기 관습이 하나님과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 사이의 언약을 활용했다고 믿습니다. 홍수는 언제 일어났나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석기 시대를 알고 있으며, 다시 4300년 이전에는 도자기를 재배하는 성벽 도시가 있었고 일종의 구조, 정치, 아마도 추장 사회, 다시 인류학적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상황, 즉 대홍수 이전 시대를 기술하기 위해 신석기 시대의 사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수는 언제 일어났나요? 신석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역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완전히 다른 물질 문화, 다른 사람, 다른 도자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단지 사라집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홍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성경학자들이 한동안 물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르(Ur)에서 울리(Wolley)의 발굴 작업을 통해 두꺼운 미사층이 발견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홍수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엔게디 남쪽에는 사해에서 나할 미슈마르(Nahal Mishmar)라고 불리는 산간 지방으로 이어지는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스라엘인들은 더 많은 사해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이 와디에 대한 매우 활발한 고고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베두인족이 사해 두루마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두인족을 물리치고 두루마리가 더 있으면 스스로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협곡, 다양한 와디의 다양한 팀을 보냈고 그 중 하나는 Pesach Bar-Adon이라는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페삭 바르-아돈(Pesach Bar-Adon)은 이 와디 중 하나의 절벽 면을 따라 동굴을 발굴했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 솔로몬에게서 성전 보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것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솔로몬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의 구리 유물, 보물, 진정한 보물의 은닉처였습니다.

이번에도 엔게디에서 발견된 성전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 둘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엔게디 신전과 이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은 분명히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것들을 회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성전은 버려졌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도자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냥 남아 있었고 절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냥 떠나고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기의 비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기 성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확실히 제기됩니다. 바벨탑의 용알이는 인류학적 핵심이다.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출현과 하나님을 제외한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온갖 종류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언어, 인간 아기가 어떻게 아주 어린 나이에 말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언어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유래되었는지입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성경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후기 시대와 고고학 주제를 다루기 전에 바벨탑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고, 어떻게든 천국과 신성한 지위에 도달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믿음에 대한 일종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태초부터 인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치인 바벨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다. 셈어의 Bab은 문(Gate), 엘(EI), 신(God)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구라트나 이 탑을 짓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데, 바벨탑은 발랄이나 바벨의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늘 높이까지 이 거대한 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며, 그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 아래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거의 웃기 위한 재미이며, 천국에 도달하려는 인류의 노력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후대의 왕들이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탑과 우표와 건물을 짓고 모든 벽돌에 그의 이름과 설형 문자를 새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 사담 후세인이 이들 중 일부를 복원했을 때 그가 복원에 사용한 벽돌에는 사담 후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신느부갓네살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마도 이 지구라트 중 하나인 계단식 피라미드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 꼭대기에 사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시 역사 전선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메르 왕 목록이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메르는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화였으며 왕의 목록이 적힌 여러 개의 점토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소위 대홍수 이전과 이후의 왕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수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수천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족보인 톨레도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의 수명은 수천 년이 아니라 수백 년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수메르 왕 목록의 일부에서 과장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연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타락 이후에도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전히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초기 족보 목록, 특히 창세기 5장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초기 장의 예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후 기간.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son 박사입니다. 세션 4, 원시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